

마 사도행전 강해: 초대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성경말씀: 행1:1-26

신약성경: 역사서 4복음서 사도행전, 교리서, 예언서

복음서는 주님의 행적: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 기록 시기: 주후 65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33년

수신자: 일차적으로는 데오빌로이며 실제적으로는 모든 성도들

이름: '사도행전'이라는 책명은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글을 뜻하지만 실제로 이 책은 사도 베드로(1-12장)와 바울의 행적(13-28장)을 다루고 있다.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3회 언급되고 야고보는 순교로 인해 등장하며 이들 외의 다른 사도들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책은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행적이 사람이라는 도구에 의해 계속해서 진행됨을 보여 준다. 주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 이후에 성도들을 통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하고 가르치신 것

목적: 은혜의 경륜 시대에 교회의 형성 과정을 통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권능을 보여 주는 것,

내용: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강림과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가 확고히 세워진 것(1-7장),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복음이 선포되어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진 것(8-28장)을 기록한다. 아울러 이 일을 위해 사도들과 초대 교회 성도들이 당한 핍박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인내와 용기 등을 보여 준다. 사복음서에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드러난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 있고 사도행전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삶에서 활동하시는 그분의 생명이 제시되어 있다. 행1:10-11은 요21:21-23에 언급된 그리스도의 재림의 진리를 확증한다.

핵심 장: 2장(성령님의 강림) 핵심 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1:8) 사도 바울 맥잡기를 통해 9장부터 28장까지 강해

이왕이면 사도행전 1-8장을 강해하여 사도행전 전체를 보게 하는 것 필요. 특히 1-8장 베드로와 사도들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가 세워지는 변천 과정, 여기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다. 위어스비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요한복음 다음에 갑자기 로마서, 어떻게 로마에 교회가 있을까? 그래서 사도행전 사도행전 앞부분 구성: 무언가 극적으로 기록을 남기려면 2장의 오순절 사건부터 기록하면 좋다.

그러나 1장이 있음, 누가복음 24장을 보라. 예수님 승천, 제자들 성전에 남아 있음(24:53) 같은 저자의 책,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 그 내용이 1장에 있음

사도행전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일 기록

누구에게: 데오빌로(1), 로마의 고위 관리, 그리스도인, 누가복음 요약: 1-2절

사도행전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 일하시는 것 기록

1장에서는 사도들이 처리해야 할 일, 유다 대신 한 사람을 세우는 것, 그리고 오순절을 대비하는 것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부활 그리고 40일을 같이 계심(3), 오순절: 초실절 이후 50일

그리고 구약 성경을 열어 보여 주심(눅24:44-48)

1. 부활의 확실함(3). 기독교의 핵심(롬10:9-10), 이것 때문에 제자들 변함

그들에게 infallible proofs: 절대 확실, 하나님의 속성

사도행전 내내 나오는 사실: 부활 증언, 사도들의 증언, 우리의 증언

2. 하나님의 왕국 설명(마6:33), 왕국은 그분의 통치

사복음서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사도들은 그 땅에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 고대,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오심,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그 왕국이 좀 더 넓혀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창조물에게 전달되는 것 가르침(마28장의 대위임)

3.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4), 눅24:49, 그것은 성령님의 침례이다(5). 마3:11-12의 침례

- 자 요한: 성령 침례, 불 침례, 천국과 지옥, 그런데 성령 침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요7:37-39).
4. 제자들의 질문(6), 그 왕국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회복하시려는가? 부활하셨으니
유대인 제자들의 마음에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 선포 없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유대인 왕국
 7. 주님의 대답(7), 유대인들의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이다. 그러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마 23:39). 왕국은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8.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8),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증인: 사도행전의 중요 단어
순서 예루살렘, 유대(1-6), 사마리아 땅(8) 땅 끝(9-28)
그런데 그 일은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일어난다. 그래서 기다려야 한다.
 9. 이 일이 끝나면 내가 다시 온다. 올리브 산으로(슌14:4), 이것은 휴거 뒤 7년 환난기 뒤 이 땅에 오시는 것

다락방 기도 모임(12-14)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기도하며 기다림

12절: 안식일 거리 약 1.5km

이 모임에는 11사도, 여자 남자, 그분의 형제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도(14)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와 간구(14), 주님의 명령에 순종

맛디아 선출(15-26)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 기록이 많다. 지금 15-26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 기도

용기(행4:23-31)

기도는 늘 이들이 한 일(2:42-47; 3:1 등)

스데반의 기도(7:55-6),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8:14-17), 사울의 기도(9:11) 등

마가 요한의 집에서 베드로 구출 위해 기도(12:1-11),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 기도(13:1-3)

그래서 사적 기도 말고 교회의 공기도가 늘 필요하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토요일
가능하면 와서 같이 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믿었다.

주님이 안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구약)과 기도, 120명(15)

베드로라는 리더(15), 교회는 다른 모든 조직처럼 리더들이 있어야 한다. 초기 교회 베드로(요21:15-17)

이들은 이미 성령님을 받았다(요20:22).

이제 오순절에 그들은 성령님의 침례와 충만

우리 주님은 구약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 주셨다(눅24:45).

그래서 베드로는 구약성경 인용

시41:9(16), 시69:25(20), 109:8-10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16-19), 피 밭(마27:3-10)

감독직(20) 사도들과 목사들은 감독자(행20:28).

구약 성경도 성경이다. 신약만이 성경 아니다(딤후3:16-17).

그래서 균형 있게 가르쳐야 한다. 마4:4

왜 다른 사도를 택했느냐? 바울이 나올 텐데. 사실 맛디아는 여기에 이름이 나오고 끝이다.

행1:13 이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말고 다른 사도들은 이름이 언급되지 않음

그런데 12명 중 하나가 되려면 자격이 있어야 한다(21-22). 바울은 자격 미달

바울은 자기가 12명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고 말함(고전15:8).

자, 여기의 12명은 12지파의 유대인 사역, 바울은 이방인 사역, 그러므로 하나를 뽑아야 한다.

맛디아 선출은 하나님의 뜻, 2:1-4 사도들 성령 충만, 14절에는 맛디아도 포함됨

이스라엘의 오순절 명절, 12지파를 향한 선포, 12명 필요, 1-7장은 유대인 사역

이방인은 10장에 가서야 등장(10년 뒤), 이 점을 놓치면 사도행전 이해 어려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간구(24), 준비(잠16:33)

마르 사도행전 강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참된 의미

성경말씀: 행2:1-47

지난 주1장: 예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왕국 선포(세상 끝까지), 제자들은 여전히 메시아 왕국(유대).

주님의 말씀 1:8, 승천, 맛디아를 뽑음, 이제 드디어 2장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심
초대 교회 성도들: 우리가 가진 건물, 돈, 영향력, 유튜브 없었다. 그런데 세상을 뒤흔들.

원인: 성령님의 파워, 오늘날 우리가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역시 성령님의 파워

오순절 성령 강림(1-13)

1절: 구약 시대 오순절, 율법(십계명) 수여, 신약 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

드디어 성령 강림(2-3): 구약 시대 성령님의 활동: 창조9장1:1-2), 여러 사람들(사사기, 사무엘기),

예수님의 공생애 등, 기억하라 예수님은 구약 시대 태어나 구약 마무리하고 신약 여심

신약 시대의 큰 변화: 내주(요14:16-17), 이 일은 십자가 사건 이후라야 가능함(요7:37-39)

2-3절: 그 날 생긴 것:

1. 소리: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 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2. 불의 혀 같이 갈라진 것(tongues)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날 바람과 불이 내려온 것이 아니다.

4절: 그 결과 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 타언어(tongues)로 말하기 시작함,

여기는 성령 침례와 충만 둘 다, 침례인 이유(1:5), 잠그는 것, 충만: 능력 부여

침례는 내가 그분의 몸속 속하는 것, 드디어 교회 시작, 충만: 사역 감당하는 능력

침례는 한 번, 충만은 여러 차례

5-13절: 타언어로 말하기 시작함, 이것은 사람들이 아는 말이었다.

그들은 하나님 찬양, 복음 선포가 아니라

사도들은 듣는 사람들의 언어로 말함

그러므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등, 방언, 사람들이 아는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1. 바벨탑의 심판 회복(창11:1-9): 언어가 갈라짐,

2. 복음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을 보여 줌

여하튼 이 일로 인해 놀라고 당황하는 일이 생김

베드로의 증언(14-21)

베드로의 말(11사도와 함께): 지금은 오전 9시, 이들은 술 취하지 않았다.

유대인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말로 설명함

16절을 잘 이해해야 함: 베드로는 요엘의 대언이 성취되었다고 하지 않음

요엘서 2장 28-32절, 이것은 세상 끝 재림의 때에 메시아 강림과 함께 이루어질 일들

행2:19-20을 보라. 이루어지지 않았다.

포인트: 이것은 요엘서를 기록하신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의 일이다.

혹은 그는 요엘서를 기억하고 곧 재림이 일어날 줄로 생각하였다.

17-18절의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다.

중요한 일: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아직 신약 시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함, 3장에서

말할 것임

베드로의 설명(22-36)

베드로의 말(11사도와 함께): 지금은 오전 9시, 이들은 술 취하지 않았다.

유대인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말로 설명함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1.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다(22-24), 베드로의 청중: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음,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이다(24)

2. 이것은 이미 다윗이 예언하였다(시편 16편 8-11절, 행2:25-28).
3. 예수님이 바람 소리, 불의 혀, 방언 같은 이런 기적들을 행하였고 너희는 다 증인이다(33).
4. 자, 지금 성령님이 세상에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셨다. 요엘의 약속: 언젠가 땅에 성령님이 오신다. 예수님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낼 테니 기다려라. 만일 예수님이 죽었다면 어떻게 성령님이 오느냐? 그러므로 그분은 부활해서 아버지께 가서서 그분을 보내셔야만 한다.

다윗의 시편 인용(34-35, 시110:1)

그러므로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36)

백성의 반응(37-41)

베드로의 말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음(37), 우리가 어찌할까?

베드로의 말(38),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들의 사면, 그러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중간에 침례가 있으므로 물 침례 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 아니다. 회개했기에 구원 침례는 회개의 표시로 받는 것이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미국의 캠퍼스가 생긴다. 무조건 물속에 집어 넣는다.

구원은 모든 사람 대상(39)

모두가 구원받아야 한다(40)

그때에 3000명 회개 침례, 그들에게 더해짐, 출34: 오순절 날 율법 수여, 바로 그날 불순종하다가 3000명이 죽음(출32:28), 구약의 율법은 정죄와 사망, 신약의 은혜가 사람들을 구원함(고후3:9)

교회 형성(42-47)

42: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기도

43: 말씀이 없기 때문에 표적들(히2:4).

44-45: 모든 것 공동으로 소유, 이것은 공산주의가 아니다. 공동체 생활 하자고 하면 도망가야 한다.

지금 유대인들, 재림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3:19-20)

46: 한 마음 한 뜻, 날마다 모였으니 지금도 매일, 아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일시적인 형상

47: 나타나는 현상, 호감을 받음, 하나님이 더해 주심, 믿는 것은 사람의 몫

ㄹ 사도행전 강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임박한 재림 믿음

성경말씀: 행3:1-4:4

오순절 날 성령 강림: 성령 침례이자 성령 충만, 여러 지역에서 온 수많은 유대인들

12제자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설교하는 것을 들음

베드로 요엘서 2장 언급, 재림의 때,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음, 공동체 생활 지금은 No!

오늘 3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기억할 것: 여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 왕국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풀리고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1-10)

베드로와 요한의 9시 기도 시간(오후 3시), 성전 기도(1), 유대인들이다. 여전히 구약 시대 풍습(시

55:17; 단6:10; 행10:30), 저녁(오후 3시)과 아침(9시)과 정오(12시)에 하루에 세 번씩 기도,

10장까지 이런 구조: 유대인 중심의 교회

2장과 3장의 대조: 베드로 대중, 제드로 개인, 설교, 신유, 그 결과 축복, 그 결과 체포와 박해

3장의 끝 부분: 구원받는 자들 교회에 더해짐, 그 과정이 3장에 기록됨, 고통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 사복음서에 늘 같이 나눔, 경쟁의 대상, 그러나 성령 침례 이후 그런 것 사라짐

아름다운 문, 나면서부터 견지 못하는 자, 구제물 요청(2)

거기 수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 그러나 성령님은 그를 지목하심

이방인들의 뜰에서 성전까지 9개 문, 아름다운 문? 동문일 것이다.

구제물: 유대인들의 믿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선행, 성전에서는 마음이 부드러우므로 하기 쉬움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제물 요청(3)

베드로의 말(6),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걷는 것, 그리고 구원받는 것

그가 일어나 뛰면서 하나님 찬양(8), 백성들이 놀람(9-10)

그는 완벽하게 치유를 받음

이름: 사전 뜻: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물, 단체, 현상 따위에 붙여서 부르는 말, 동수, 창수,

진수 등, 그런데 이름은 그런 의미로만 쓰이지 않음, 이름과 함께 권위, 특성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이름으로 명령이 떨어진다: 대단히 중요하다. 복종해야 한다.

덱프 트릭, 조그만 경찰차, “서라” 법의 이름으로, 그러면 서야 한다.

그러므로 이름은 대개 권위와 권세 표현

예수님의 이름: 그 뒤에 모든 권세와 권능, 하나님의 아들(마28:18)

그분의 이름은 모든 위의 이름(빌2:9-11), 그러므로 경배와 복종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큰 관심: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28:19,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권위

기도 끝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원, 인격, 사역, 권능을 모두 걸고

그러므로 굳이 “예수님의 존함으로” 할 필요 없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No!

3:6,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 능력

16을 보면 이름의 용례 알 수 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 그분의

이름이 병든 자를 낫게 함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11-18)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병자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옴. 솔로몬의 주랑(성전 동쪽에 위치함, 주님은

여기서 사역하셨고(요10:23), 교회는 경배함(5:12), 기둥 사이의 긴 복도 혹은 방

12절: 우리가 우리 힘으로 고친 게 아니다. 하고는 예수님 소개(13)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너희가 악행을 저질렀다(13-15), 우리는 증인이다(15).

예수님에 대한 표현: 14-15

바로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살렸다(16과 6 비교).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사실 입증
지금 현시대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이해하기 어려움

베드로의 설교 대상: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처형에 대해 아는 자들, 구약성경을 아는 자들
즉 아무 지식도 없는 이교도들이 아니다.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 일 행함(17)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에 미리 예언하시고 그것들을 너희를 통해 이루셨다(18)

구약 시대의 죄: 두 종류(레4-5) 1. 알고 행하는 죄, 큰 죄(출회 혹은 사형 등). 2. 모르고 지은
죄: 회개 가능, 하나님의 용서

예수님의 기도: 그들이 알지 못하여 이런 죄를 짓는다(눅23:34). 하나님의 심판 대신 성령 강림
당시 이스라엘, 죽일 의도 없이 사람을 죽인 사람, 도피성 구원(민35:9-34)

유대인 회개 촉구(19-26)

19-20: 대단히 중요하다.

당시 베드로와 유대인들의 관점: 재림의 임박함

1. 회개, 침례자 요한의 회개 선포, 유대인들 들어서 알고 있음
2. 회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변화를 받아야 한다. 특별히 이 경우 그분을 14-15의 그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바울의 표현(행20:21)
3.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너희가 맞아들인다. 메시아 왕국
하나님은 아신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그러나 베드로는 모른다. 백성에게 간절히 호소, 유대인 공동체 생활 이해(말3:1)

21-23: 모세와 같은 대언자(신18:15, 18-19)

24: 그 이후 사무엘 이후의 모든 대언자들, 이 날들, 메시아의 초림

25: 너희는 대언자들의 자손,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 언약(창12:1-3; 22:18), 무조건적인 언약, 이것을 이루셨다.

26: 예수님 부활, 너희에게 먼저 그분을 보내셨다. 유대인들 먼저 구원, 그리고 이방인들 구원
여기는 민족의 회개, 그러나 민족의 회개는 개인의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한다.

지금도 먼저 너희에게 그분을 성령님을 통해 보내셨다.

그 결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손을 댄(4:1-3)

사두개인들(1) 부활을 믿지 않음(행23:6-8)

많은 사람 믿음(4), 5000명, 아마도 3000+2000

몇 가지 실제적인 교훈들

1. 하나님이 오래 참아 주신다: 유대인 지도자들 침례자 요한 거부, 예수님 거부 그러자 이번에 성령님을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 하신다.
2. 우리의 증언: 1. 죄라는 나쁜 소식, 2.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원이라는 좋은 소식
3. 대중 설교: 각 사람의 죄인을 회개에 이끌도록 해야 함(내 문제로 인식하여야 함)
4. 기독교 믿음의 진실성은 변화된 삶에서 나온다.
5.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마귀가 역사한다. 대개 종교 지도자들
6.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복을 주시고 그것을 사용하고 하신다. 그래서 말씀의 증언자
7. 예수님의 이름의 파워

마 사도행전 강해: 초대 기독교 박해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성경말씀: 행4:5-31

초대 교회: 후원자, 재정 없음, 지도자들 갈릴리 어부, 정치적 영향력 가진 자들과 유대 관계 없다.

베드로 요한 등은 감옥 수감 경력, 지도자는 커녕 교회 멤버가 되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그들은 성공적인 목회, 전 세계 기독교 확산,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 스펠전 목회 성공: 기도하는 형제자매들, 나도 그렇게 말할 것이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반응하는 것, 섬김과 전투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번 장에서도 역시 예수님의 이름 강조(4:7, 10, 12, 17-18)

예수님의 이름 번호(5-14)

베드로와 요한, 앓은뱅이 고치고 부활 선포, 유대인들 회개 촉구

결국 종교인들이 와서 그들 체포, 구금(4:1-3)

종교 재판: 산헤드린 공회: '함께 둘러앉는다'는 뜻.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통치) 기관, 모세가 임명한 70인의 장로회(민11:16)에 그 기원을 둔다. B.C. 3세기경 장로 중심의 귀족 회의에서 출발되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며 공회원은 바리새인, 사두개인(제사장 계급을 독점), 서기관, 장로 등 백성의 대표들로 구성되었으며, 율법에 따라 70명을 정수로 하였다(의장 포함 71명)

당시 위원들은 대개 대제사장의 가족/친척들, 종교인들 타락, 그래서 가족들끼리 해 먹음

안나스, 공식적으로 AD 6-15년 대제사장, 그러나 그 뒤에도 다섯 아들과 사위를 꼭두각시 대제사장으로 두고 유대인들 지배함, 그의 사위 가야바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

5-6절: 공식적인 산헤드린 공회(15), 몇 달 전에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모임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을 알게 됨(13)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들의 종교 신앙 문제, 그래서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르침 교사 확인 필요(신13)

그들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피할 수 없다(14).

한 마디로 보통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 인정하고 싶지 않음

또다시 누구 이름으로 했느냐가 관건임(7), 사탄이 그들과 함께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함

베드로의 번호(8-14)

베드로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야기함(8), 성령 충만(2:4, 4:8; 4:31)

성령 침례는 한 번(고전12:13), 충만은 여러 차례(엡5:18)

베드로의 설명(9-10), 산헤드린 공회 멤버들 역시 그 앓은뱅이 보았고 구제물을 주었음 어떻게 나왔느냐? 예수님 이름으로(10), 공회원들 마음에 찢림, 자기들이 그분을 죽임

그분이 죽은 줄로 알고 있는데 살아 있고 이 사람을 살림

공회의 다수는 사두개인: 이들은 부활 부인,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말하니 곤혹스러움

그런데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베드로는 말함(눅21:12-15)

그러면서 시118:22 인용(11; 마21:42, 뱀전2:4-8)

종교인들이 바로 건축자들, 그들이 버린 돌이 예수 그리스도

돌 혹은 반석: 유대인들에게는 잘 알려진 이미지

하나님은 반석, 다니엘서 2장, 메시아는 돌

베드로의 최종 증언(12), 돌이실 뿐만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 종교다원주의 WCC No!

그가 온전하게 되었다(9): 몸뿐만 아니라 영과 혼도,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

베드로의 설교 증언 대상(10): 여전히 유대인

공회의 논의(15-22)

공회는 딜레마(13-14)

기적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무식한 자들이 기적을 일으키느냐?

더욱이 그들은 나사렛 예수의 제자, 살아났다고 주장함
제자들의 논리, 확신, 그들은 놀랐다,
기적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 혹은 베드로의 메시지 입증하지 않는다.

사탄도 기적들(살후2:9-10), 거짓 대언자들(신13:1-5).
오순절 사건 이후 기적과 메시지는 일관되게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성령님을 통해 일하신다는 증거
특히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자신의 증언 확증
중요한 것: 기적은 말씀을 대체할 수 없다(눅16:27-31)
공회의 논의(15-18): 진리에 순응하기보다 피하려는 기도, 그랬더라면 구원받을 가능성
그러나 교만과 강박한 마음으로 인해 불가능

즉 기적만으로는 구원 불가능, 말씀을 듣고 확신해야 한다(행14:1-20).
그들의 결정: 조용히 두면 사라질 것이다(17). 위협
요즘 내가 많이 느끼는 것, 진리를 말해야 한다.

명령(18), 그런데 그럴수록 믿는 자 증가, 120명, 3000명, 5000명
그 뒤 더 증가(5:14; 6:1, 7), 마귀가 잠잠하게 하면 할수록 증언이 늘어남
공회의 실패(19-22)

베드로의 말(19-20):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해야 한다.
“인기를 얻느냐?”, “이 일이 옳으냐?”, “이 일이 안전하냐?”
지금 통치자들에게 항거하고 있다.

우리는 치리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 100%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부나 정부 지도자들에게 항거해야만 하는가?
<답: 정부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면 그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끌고 가면 항거해야 한다. 항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세 당시 산파들, 그의 부모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정부 권력이 하나님께 대적하면 비폭력으로 항거해야 한다. 공회의 결정(21-22)

교회의 기도(23-31)

시험을 받을 때 교회가 한 일 기도, 여기는 위대한 기도 중 하나

1. 주님에 대한 증언 사역과 섬김의 결과 기도
즉 지금 전투하는 자세로 임함. 콘서트 장 가는 게 아니다.
베드로와 요한 전투, 성도들 절실하게 기도, 진리를 증언하면 할수록 절박한 기도
2. 한마음 기도(24),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 매우 중요함
3. 성경에 근거한 기도(시2)
4. 위협을 피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음, 좋은 기회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함
상황 설명(28), 이미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 숙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다.
즉 쉽게 살려고 기도하지 말고 강한 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라.
5. 하나님의 주권 인정(28)
6. 창조자 인정(24), 무엇을 염려하는가?
7. 시편 2편: 이교도들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 대적,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웃으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사정이다. 하나님이 보시고 웃으신다.
8.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함에도 자기들의 책임을 버리지 않았다.
9. 보호가 아니라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였다(30).
10. 예수님의 이름 영광(30)

하나님의 응답(31): 성령 충만, 담대함

ㄹ 사도행전 강해: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다

성경말씀: 행4:32-37

오순절 성령 강림, 3장, 태어나면서부터 견지 못하는 사람 고침, 유대인들 회개 촉구

4장 종교인들의 박해, 이 이름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 대답(4:11-12; 19-20)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성령 충만(31)

오늘 읽은 32-37절에는 초대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공동체 생활, 오해 해결 사도행전 교훈: 실제로 중요한 것: 성령 충만한 교회, 그 교회의 특징(행2;44-47)

1. 성령 충만한 교회: 한마음 한 뜻(2:44,46)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가 되게,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유기체, 유기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죽는다. 그런데 유기체가 조직체로 바뀌면 생명력이 사라지고 역시 생명을 죽인다_유대인들의 종교, 성령님이 충만하면 교리, 교제, 예배, 헌금 등에서 한마음이 된다.

2.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는다(47).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이 교회에 계속 더해짐, 백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교회 핍박하지 못함(4:21; 5:26), 성령 충만한 교회에는 대적들이 있다. 그러나 주님의 역사로 인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다.

3. 성령 충만한 교회: 불어난다. 새 사람이 늘어났다(47). 몇몇 사람만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아니다. 공동체 전체가 한다. 초기 공동체 모든 성도가 전도 그 결과 120명에서 5000명으로 증가 마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사역이 줄어들지 않음, 베드로와 요한의 핍박, 교회의 영적 상태 그대로.

교회의 하나 됨의 증거 중 하나: 서로를 위해 희생함(32-37)

성령 충만하면 주는 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 서로의 것을 나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나누었다(5:4). 동기는 사랑이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된다. 그런데 과연 32절을 지금 실천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가? 단언컨대 이런 교회가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레위기: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지금은 먹는다. 말씀이 주어진 시대와 환경이 있다.

지금 여기 초대 교회: 100% 유대인들, 예수님의 교회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으나 베드로를 포함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함

3장 19-21절에서 보듯이 유대인들이 회개하면 예수님이 다시 와서 왕국을 세우는 것 기다리고 있음 즉 오늘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말씀하신 하늘의 왕국을 세우실 줄로 생각함 갑자기 성전에 오신다(말3:1).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성전 근처에서 생활함, 외국에 살던 사람들도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 먹고사는 문제 발생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땅을 팔고 돈을 가져옴(34-35).

이런 것을 지금 그대로 실천하면 안 된다.

국내에도 공동체 생활을 강요하는 교회 모임이 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천덕 신분의 예수원 공동체, 모든 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

성경 오해: 사회주의 공산주의 탐닉 마르크스 레닌의 책들 섭렵, 그리고 공동체 설립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회가 아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런 식의 모임을 이어갔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와 다르다. 행1:8

그래서 약 7-8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스테반 순교 사건

예루살렘 교회 핍박, 흩어짐(8:1), 그래서 유대인들의 초기 공동체는 없어지고 맘

그 이후에 형성되는 이방인들의 교회에는 전혀 이런 공동체 생활이 없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어디에도 이런 것을 가르치거나 요구하는 구절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헌금의 원리는 고린도후서 8-9장에 나와 있다(고후9:6-7).

또한 지금 이 시대에는 사도들이 없으므로 그들의 발에 돌 필요 없다.
이런 차원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 공동체 생활을 하자는 것은 변천기의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모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심각한 오류이다.

그러므로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하는 데서 나와야 한다.

성경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가르치지 않는다

사회주의: 교과서 정의(2007. 12. 15.한림학사): 사회주의는 인간 개개인의 의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여기는 이데올로기이다. 사회주의는 인간은 고립되어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면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아가게 되므로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 여기고, 따라서 개인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는 방향을 제시한다. 사회주의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인성은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하고, 사회 속에서의 인간상을 우선시한다. 사회주의는 사회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며, 개인의 자유는 사회 속에서 인정되고 향유될 수 있는 가치로써 시민 혁명 이후 등장한 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논리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생산 수단의 공유화와 국가적 통제를 제시했다. 사회 문제가 사유재산제에서 발생한다고 보아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 또는 국유화가 이러한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생산 수단을 국가 소유로 하고, 각자가 노동을 통해 실현된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누구나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즉 사회주의는 자유를 잃고 노예로 가는 지름길

이것을 실현하려면 정부의 소수 엘리트 집단에게 권력이 집중되어야 하고 결국 철저한 계획 경제를 통해 사람들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재분배해야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즉 부자들의 돈이나 기업을 강제로 빼앗아서 국가 소유로 하면서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이런 시스템을 지지한 적이 없다.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정부가 부자들을 탄압해야 한다든지 부당하게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말이 없다. 또한 국가가 모든 기업을 국유화하고 계획 경제를 실시해야만 한다는 말이 없다.

'코뮤니즘(Communism)'은 본래 공유재산을 뜻하는 '코뮤네(Commune)'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로서, 사유재산제를 철폐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재산을 공동 소유하는 사회제도를 의미한다. 공산주의의 이상은 사유재산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타락과 도덕적 부정을 간파하고, 재산의 공동소유를 기초로 하여 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공동사회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상적 정의

그러나 오늘날 공산주의라고 할 때는 문헌에만 남아 있는 죽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현대 공산주의 즉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가리킨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의 자유 특히 재산권과 인권의 소중함에 대해 말한다.

아담은 죄 짓기 전에도 일했다(창2:15). 죄 지은 이후에도 땀을 흘리며 일했다(창3:19).

이집트 탈출, 하나님의 선민,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5.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17. 너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부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아버지 것 물려받아서 부자가 되는 경우는 소수이고 이들도 그냥 놀면 곧 망한다.

노력을 안 하고 부자들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나누어 주는 것 즉 사회주의/공산주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살후3 10-12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

10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나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살후 3:11)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살후 3:12)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바나바의 등장(36-37)

기존 선경의 권위자: 권세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권면과 위로를 하는 아들, 위로의 아들
아들이라는 말: 누구의 아들, 누구와 동일한 성품을 가졌다는 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사람의 아들 사람, 위로의 아들: 이로가 가득한 사람
바나바가 등장하여 결국 바울을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조용히 사라짐
바나바의 등장으로 인해 질투에 가득 찬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망하는 일이 5장에 기록됨
레위 사람들은 원래 땅을 소유할 수 없음. 그러나 바나바는 키프로스에 거하므로 문제없음

마 사도행전 강해: 아니니야와 삽비라 성령님께 거짓말하다가 죽음
성경말씀: 행5:1-16

오순절 성령 감림, 교회 부흥, 핍박, 교회 내부의 문제

오늘 첫 토픽은 아니니야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거짓말하다가 죽는 것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 기강이 무너지며 안 되므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도전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

1. 이집트 탈출, 율법 수여, 3000명 죽음(출32:28), 성막을 지음 나답과 아비후 죽음(레10), 가나안 들어간 뒤 아간과 그의 가족 죽음(수7), 하나님의 경고 우리에게 대한 경계(고전10:11-12)

아니니야와 삽비라의 죄는 마귀에 의해 조장됨(5:3)

마귀의 교회 붕괴 계략: 외부 박해 성공 못하자 내부에서 반역하게 함(행20:28-31).

마귀의 능력: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에도 일하여 자기 뜻을 이루려 함

벧전5:8-9, 엡6:10-18의 영적 싸움, 둘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

마귀의 성품: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살인자(요8:44)

이 부부는 거짓말을 하다가 죽임을 당함, 어느 면에서 하나님은 마귀를 정죄하심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마6:1-4; 19-34), 우리가 영광을 취하면 안 된다.

바리새인들(눅18),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원함, 결과: 하나님께는 못 받음, 요5:44
우리가 영광을 취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한다.

교만이 가장 큰 죄(사14:12-15), 아담의 죄(창3), 즉 모든 죄의 시작이 교만이다.

아나비아와 삽비라의 죄는 사악하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일

그 당시의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단지 말로만 믿음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을 불가능, 그들은 분명히 신자, 그래서 믿음대로 소유물(땅)을 팔았다(1: 3-4).

그들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5:3) 성령님을 시험하였다(5:9). 즉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존재들
교회는 어떤 존재,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기관(행20:28; 엡5:25)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일을 하는 기관

사탄은 교회를 멸하려 함, 내부 사람들 사용하는 것이 가장 쉽고 타격이 큼

만일 베드로가 바르게 분별하지 못했더라면 그들은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들

마귀는 그들을 이용해 자기 계획 실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딤후3:15), 그러므로 거짓은 교회가 용납할 수 없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 혹은 사람들(고전3:16), 마귀가 등지를 틀게 하면 안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딤후2:1-4), 마귀는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교회를 멸하기 원한다.

아니니야와 삽비라 사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같은가?

즉 위선이 없어야 한다.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신 것

심지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하는 것 모두 위선이 없게, 예수님의 말씀(마15:8)

여기에 기록된 것은 교회의 권징이 아니다.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다(히10:30-31).

그들은 먼저 스스로를 판단했어야 했다(고전11:31). 우리도.

삽비라에게 베드로는 그녀가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함. 즉 고의로 하나님을 속임, 하나님의 말씀(마4:7)

성령님께 거짓말(3), 하나님께 거짓말(4),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

이들의 죄 요약: 하나님의 돈을 강탈한 것이 죄가 아니다. 그분의 영광을 빼앗은 것이 죄

땅을 팔 필요도 없었고 교회에 가져올 필요도 없었다(5:4).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행5:4, 9), 아마도 4장에 나오는 바나바처럼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것이 결국 사망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다(약1:15).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교회에 닥침(행5:11)

큰 권능, 큰 은혜(행4:33), 큰 두려움(5:11), 이 셋이 교회에 늘 존재해야 한다.

히12:28-29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구원받은 사람들일까?

앞뒤 문맥으로 보면 당연하다.

구원받은 자들이 심각한 죄를 지으면 그들의 죄로 인해 육체의 죽음이 닥친다.

고전5장, 음행, 바울의 판단(3-4)

고전11장 주의 만찬, 경홀히 여기다가 죽은 자들이 있음(27-30).

요일5:16-17, 성도의 사망에 이르는 죄, 여러 종류

나답과 아비후: 이상한 불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명령 분순중, 고라: 시기심,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님을 속이고 거짓말, 고린도 교회 성도: 음행, 주의 만찬 멸시 등

심각한 죄 반드시 징계가 있다. 없으면 사생아(히12:8)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결과(12-16)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 연합, 존경, 성장, 사탄은 교회를 반대로 몰고 가려 했으나 교회는 여전히 성장함

여전히 하나(12), 호감(13), 증가(14)

수많은 사람들 구원, 특별히 처음으로 여자들 구원도 언급됨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10번 이상 여인들을 언급하며 초대교회에서 그들의 역할 보여 줌
당시 상황으로 보면 대단한 일

주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기적들을 행함(롬15:18-19; 고후12:12; 히2:4)

기적들이 나타나는 때가 있었다.

구약은 율법과 대언자들의 시대, 율법 모세, 대언자 시대 시작 엘리야, 다 기적의 때
신약 예수님과 그분의 사도들 시대, 기적들이 많이 나타남: 목적(히2:4)

사도의 조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행1:22; 고전9:1), 지금은 없다.

초기 사도들, 대언자들 교회의 기초를 놓음(엡2:20), 목사, 교사, 전도자 그 위에 세움
지금은 사도의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고후12:12)

병 고침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병 고치는 특별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말이다.

은사의 특징: 다 고치는 것이다.

사도들에게 온 사람들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다(16). 이것이 은사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이 주어지면서 은사 중 표적 은사는 사라짐:

바울의 병(고후12), 드로비모의 병(딤후4:20) 등

루터, 웨슬리, 에드워즈, 스펠전, 로이드 존스 등 어누 누구도 방언, 기적 등 행하지 못함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 육신의 질병은 잠이 낮은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죄병, 이것을 해결해야 영원히 산다.

이 병을 낮게 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권능

7 사도행전 강해: 진리를 선포하면 박해가 따른다

성경말씀: 행5:17-42

오순절 성령 감림, 교회 부흥, 핍박, 교회 내부의 문제, 지난 주 아니아와 삽비라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하다가 죽음, 교만과 위선 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극심한 죄, 육신의 멸망, 영은 구원
오순절 사건 이후 제자들 설교 주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메시아, 여전히 100% 유대인
기적들 표적들로 말씀 증언, 거의 다수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심을 목도함

그러나 기쁘게 여기지 않는 자들도 있음

기존 기득권 종교 세력들(이들 예수님 십자가 처형), 요15:20, 16:2

살아 있는 진리 대 죽은 종교 전통의 대립, 창세 이후로 대립, 가인과 아벨, 야곱과 에서 등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그러면 기존 체제가 싫어함

영국의 순교자 휴 라티머 “누가 박해당하는 것을 보면 진리 혹은 진실이 박해당하는 편에 있을 확률이
크다는 것을 알라” 행5:17-42이 이를 증명한다.

공회의 공격(17-28)

대제사장과 연합된 자들은 사도들을 세 가지 이유로 체포해서 재판함

1.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28), 유대의 종교법에 불순종
2. 교회 성도들이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는 부활 교리를 계속 증언한다(28).
3. 시기심과 분노, 순식간에 이들의 교리가 확산되며 사람들이 따름, 이들은 교육받지 못한 무식한
자들, 이런 일을 용납하기 어려움, 그래서 분노를 표출함(17)

사도들은 대규모 향의 집회 하지 않고 순순히 옥에 가둠(19)

그런데 밤에 천사가 이들을 풀어 줌(19), 말씀을 전하라(20), 그대로 함(21)

사두개인들이 안 믿는 것이 바로 천사, 그런데 천사가 이 일을 함

사도행전에는 천사들의 사역이 자주 언급된다(8:26; 10:3, 7; 12:7-11, 23; 27:23 등)

천사는 구원받은 자들을 돕는 하나님의 사역자(히1:14)

성경의 천사는 모두 젊은 남자

구약 시대 주의 천사: 대다수 신학자들 성육신하기 전의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함
그런데 간수들도 리더들도 이들이 구출된 것을 모름(21-23).

그래서 의아해함(24)

보고를 받음(25), 그리고 이들을 책망함(28)

이것을 반대로 보면 교회가 제대로 일하고 있음의 반증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옴(시76:10)

이제 성령 하나님의 파위를 생각해 보자

사도들 무식한 사람들, 지도자들 유식한 사람들 명문 가문

그런데 왜 사람들이 급격하게 사도들을 따랐을까? 성령님의 파위가 일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사도들 목숨을 버릴 각오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고수, 선포, 다이내믹하다

지도자들 목숨을 지키려고 자신들의 죽은 전통 고수, 고인 물이다. 썩은 물이다.

대제사장의 고민

사도들이 옳으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 잘못, 그분의 피에 대한 책임(28; 마27:25; 살전
2:14-16)

사도들 진리를 확증함(29-32)

사도들 자기들의 확신을 버리지 않음(4:19-20).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다. 피를 써서 피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다.

동일한 메시지(30-32),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나 그분을 다시 살어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구원자와 통치자, 우리의 일들은 이 사실들 증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계신다.

성경에서 오른쪽 혹은 오른손은 항상 존귀, 영광, 권능, 권위의 표현이다(시110:1).

여기에서 출발해서 마22:44; 막14:62; 16:19; 행2:33-34; 5:31; 롬8:34; 엡1:20; 골3:1; 히1:3; 10:12; 12:2; 벧전3:22 등

예수님 생명의 통치자(3:15), 여기서는 구원자와 통치자

산헤드린 공회는 자기들 말고 다른 통치자를 원치 않음

그분은 우리 구원의 대장(히2:10)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베드로의 담대한 증언: 하나님의 영의 권능이 없이는 불가능

가말리엘 진리를 비켜감(33-39)

산헤드린 사람들(주로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함(33).

이때 가말리엘 등장: 그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이기는 것 안 됨

존경 받는 율법 박사, 바울의 스승(행22:3)

하나님은 가말리엘의 조언을 사용해서 사도들의 생명 구함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의 말을 들은 것을 볼 때 그의 명성을 알 수 있다.

그는 감정이 아니라 논리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예수님을 두 명의 폭도들과 비교하는 실수
드다(36)

유다(37)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 중 하나, 즉 로마의 폭정에서 민족을 구출하려는 해방자

예수님의 기적, 십자가 죽음, 부활 등 인정하지 않음

그 두 사람 그냥 두니까 사라지지 않느냐? 그대로 두면 예수님도 사라진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에게 나지 않은 것은 다 실패한다. 사람의 속성, 마귀의 사악함을 고려하면 때때로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 그러나 때때로 마귀 득세, 중세 천주교회를 보라.

무려 1000년 이상 세상 권력 차지

성공은 꼭 진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 진리임을 보증하지 않는다.

어떤 때는 이단 사이비가 폭발적으로 불어난다. 이 세상은 진리와 오류의 싸움터, 우리는 진리 편에 서야 한다. 세력이 크든 작든

여하튼 가말리엘의 중립적 모티브는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좋지 않다. 지금은 아니지만 더 세력을 얻으면 그때는 손을 써야 한다는 뉘앙스

지금 이 사람들은 진리를 위한 투쟁, 대단히 중요한 순간

그러나 그는 중립에 서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

예수님의 증언: 나와 내 말에 대해 중립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마12:30).

여하튼 공회는 그의 말을 듣고 위기를 피해 나갔다(40).

그러나 그들과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의 증언과 증거들을 시간을 들여 탐구하지 않았다(요5:39).

성도들의 예수님 선포(40-42)

사도들을 때림, 어찌면 39대, 수많은 순교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사도들의 반응(41), 마5:10-12

사실 많은 경우 인간의 성품은 고통을 통해 정련된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말씀 선포(42), 그것도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즉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충실하게, 성전에서라는 말의 의미, 100% 유대인, 주님의 재림 기대

초대 교회에는 건물이 없었다. 집에서 모임, 지금 집 교회만 주장하면 안 된다.

그들이 한 것: 선포하는 것, 가르치는 것, 설교와 설명, 두 개를 균형 있게 하는 것 필요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을 성취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

♫ 사도행전 강해: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과 이스라엘 정죄

성경말씀: 행6:1-7:60

오순절 성령 감림, 교회 부흥, 핍박,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교회 내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교회 부흥, 아직까지 100% 유대인,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1:8), 복음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다. 이것을 온 세상으로 퍼뜨리려면 무언가 촉매가 있어야 한다. 스테반 사건

스테반 포함 7명의 섬기는 자들 선출(6:1-7)

교회가 너무 커져서 사도들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짐

그리스말 하는 유대인들과 본토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1). 전자 외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열두 사도가 지혜롭게 대응함(2-3). 이 문제는 우리 문제다. 말씀과 기도보다 행정에 치우쳤다(4). 지도자들이 이렇게 되면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

기억할 것: 문제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가 오히려 기회가 된다. 늘 변영만 하면 발전이 없다.

말씀 사역만 중요하고 식사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교회 식사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린다.

여기 문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사도들이 하고 있다. 목사의 문제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믿고 좋은 사람들을 추천하라고 함, 조건(3)

정직하다는 평판, 성령님과 지혜 충만, 이렇게 해서 일곱 사람을 뽑음(5)

집사라고는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 보인다(딤후3 목사와 집사).

그런데 스테반과 빌립을 보면 말씀 선포에도 능하였다.

교회는 역동적이어야 한다.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상황이 변하니 거기에 맞게 리더들 선출

리더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역 등도 모두 역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리 불변, 시스템 변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정체 혹은 멸망

놀라운 일: 다수의 유대 성도들은 7명 가운데 6명을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로, 1명은 개종자로 뽑음(롬 12:10)

이 일곱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 스테반: 성령님과 지혜 충만(6:3, 10), 믿음 충만(6:5), 권능(6:8) 충만하다는 것은 지배를 받는 것 뜻함

그 결과 교회는 복을 받음: 하나가 됨(온 무리6:5), 불어남(6:7), 드디어 제사장들도 가담함 당시 예루살렘에 약 8,000명의 제사장, 큰 무리 가담

스테반의 증언 사역(6:8-15)

성령 충만한 스테반은 식사 행정뿐만 아니라 말씀 사역, 기적도 행함(8). 지금까지 기적은 주로 사도들 이유: 스테반을 통해 유대인들 책망, 순교, 기독교 세상 끝까지 파급

여러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 각각 다른 구역에 거함(9)

리베르티 사람: 과거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얻은 사람들, 이들이 스테반과 논쟁, 짐(9-10)

거짓 증인들 고용(10), 공회로 데려감(12), 거짓 증인들의 증언(14)

그의 얼굴(15), 천사의 얼굴, 마치 모세의 얼굴

스테반의 유대인 역사 증언(7:1-53)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연설, 중요한 연설, 이스라엘 역사 회고

위대한 지도자들이 기여한 점 기술: 아브라함(7:2-8), 요셉(9-17), 모세(18-44), 여호수아(45) 다윗과 솔로몬(46-50)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 기록이 아니라 민족의 죄 책망

설교 시작 영광의 하나님(2), 하나님의 영광(55), 그의 얼굴도 영광으로 빛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유일한 민족(롬9:4)

그런데 그 영광이 에스겔 당시 성전에서 떠남(겔10:4, 18), 다시 아들 안에서 나타남(요1:14),

다시 떠남(승천), 천년왕국 때 다시 돌아옴

아브라함(2-8): 갈대우 우르(2), 땅과 씨의 약속, 할례의 언약(8)

요셉(9-17): 400년간 이집트에서 민족 형성

모세(18-36): 구출자, 왕궁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떨기나무 사건(30-33), 이집트 탈출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 불순종(37-43)

나와 같은 대언자(신18:15, 18), 요1:21의 그 대언자

백성의 금송아지 우상숭배(출32), 3000명 사망

우상들에게만 헌물 바침(42)

결국 바빌론 포로 생활(43)

성전 멸시(44-50): 성막, 여호수아(45), 다윗 성전 세우기 원함(46)

솔로몬이 세움(47): 하나님의 영광(왕상8:10-11), 성전이 가장 중요함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 예배가 타락함, 결국 성전이 강도들의 소굴(렘7:1-16), 파괴됨

그들의 확신: 성전이 있으므로 안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건물 안에 계시지 않는다(48).

특히 지금 이 시대에는 성도들 안에 계신다.

예배당 건물 외부 형식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

결론: 하나님의 그분의 진리를 거부하였다(51-53).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해 그를 죽임(54)

하나님의 명백한 계시들을 거부하다가 결국 메시아를 죽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다.

광야 40년 시험의 기간, AD30-AD70 또 40년, 회개할 기회,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결국 성전 파괴,

온 세상으로 떠돌아다님, 1948년 돌아옴, 여전히 불신 상태

하나님의 인내, 열심, 사람의 완강함, 불순종을 본다.

스데반의 순교(7:54-60)

스데반의 마지막 말(56, 59)

결국 돌로 쳐서 그를 죽임(57-58)

종교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이슬람 사람들이 하는 일과 거의 유사하다.

사람의 마음은 불변이다.

누가 나타나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55-56)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59)

1. 스테반의 영광: 예수님은 단번 속죄 희생물을 드리신 뒤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심(시110:1; 히 10:11-12)

그러나 그를 맞이하기 위해 일어서심(55)

56절의 사람의 아들: 메시아 타이틀,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 번 메시아 상기시킴

2. 유대인들은 정죄를 받아 결국 2000년 유랑 생활, 침례자 요한, 예수님, 그리고 스테반 순교

3.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벗어남(8:1), 드디어 1:8이 성취되기 시작함, 8장에서 사마리아, 에티오피아 내시, 9장 사도 바울. 10장에서 고넬료, 그 이후로 이방인들 사역

4. 바울은 이를 통해 구원을 받음(58). 그는 이 사건을 기억함(행22:17-21)

그리스도인의 죽음, 잠자는 것(6). 몸은 무덤에서, 영과 혼은 주님께로 간다.

결론

교회 안의 문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리더: 성령, 지혜, 믿음 권능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사건: 하나님의 복음 선포 원대한 계획을 이루는 사람

그의 순교로 인해 세상 끝까지 복음 선포, 유대인들 정죄, 바울

하나님의 통치 참으로 신비하다(롬11:33-36)

며 사도행전 강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초대 교회

성경말씀: 행8:1-40

오순절 성령 감림, 교회 부흥, 핍박, 성장, 그러나 복음과 교회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다(행1:8). 아직까지 100% 유대인,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1:8). 이것을 온 세상으로 퍼뜨리려면 무언가 촉매가 있어야 한다. 스테반 사건을 통해 드디어 유대 밖으로, 8장 8장에는 4명의 주요 인물이 나온다. 위어스비

열심에 넘치는 사울(1-3)

사도행전은 11장까지 베드로 등의 유대인 중심 선교, 12장부터 28장까지 바울 이방인 중심 선교 1-3, 베드로에서 바울로 사역의 중심이 넘어가는 것 암시, 바울에 대해서는 이미 사도바울 맥잡기 25번 강해, 간단히 설명, 길리기야 다소 출신(22:3),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율법 능통(빌 3:5-6; 고후11:22), 가말리엘의 문하생(22:3)

그는 스테반의 죽음에 동의함(1), 율법에 대한 열심히 누구보다 컸다(갈1:13-14).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진심으로 믿음(3)

바울의 고백(딤후1:13)

신실한 선포자 빌립(4-8)

스테반 사건, 바울의 핍박의 결과(1, 4), 사도들 빼고는 널리 흩어짐, 하나님의 경륜, 사도들이 남은 것,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 충분히 세력이 형성된 뒤 흩어짐

드디어 복음이 유대 밖으로 나감, 사마리아 선교

사마리아 사람들 반 유대인,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 10지파 분산, 외부에서 데려옴, 혼혈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전과 제사장 체계, 모세의 율법만 인정, 지식이 부족해서 감정적인 예배 흩어진 자들은 대개 그리스말 하는 유대인들: 이방인들과의 친화력 좋음

빌립은 일곱 명의 일꾼 중 하나(행6:5), 그러나 스테반처럼 복음 전도 사역에 성장함

복음전도자라 불림(행21:8). 그는 사도들이 금기시하던 사마리아 선교

빌립의 기적들(6-7); 사마리아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원래 사도들만 기적, 그러나 스테반과 빌립도 복음 전파 위해 기적

그리스도 선포,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임(5-6), 이것이 중심이고 먼저였다. 말씀의 확증을 위해 기적들 다시 한 번 강조: 지금과 상황이 다르다. 아직 신약 성경 기록이 없다.

그 결과 복음 수용, 기쁨이 넘침(8)

드디어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마법사 시몬(9-25)

성경의 기본 원리: 하나님이 바른 성도들을 심으면 마귀도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는다(마13:24-30)의 가라지 비유, 침례자 요한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바울의 사역에 등장한다.

사마리아의 부흥, 많은 성도들, 그러자 거기에 마귀의 종 시몬이 나타남

마법 사용, 사람들 넘어감, 그들의 고백 하나님의 권능(10)

이것은 마귀의 영향으로 이루어짐(살후2:1-12)

빌립의 말씀 선포, 기적 사람들이 그를 따라감(10), 자기 명예를 잃는다(11). 안 된다.

많은 사람들 구원받음(12)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음(13), 그는 말씀을 믿지 않음, 아마도 빌립의 기적들을 믿음(13), 마음을 다해 믿지 않음(8:37), 빌립과 함께 있으면서 기적들에 놀람(13)

성령님을 받는 일(14-17)

여기의 말은 성령님의 선물(행2:38)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는 뜻, 타언어로 말하는 것 등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은 성령님을 받음(15)

사도행전에는 순서가 바뀌는 일이 많다. 변천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조금 뒤의 에티오피아 내시,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침례받음, 방언 같은 성령님의 선물 등 없다.
 확고하게 세워진 교리는 바울의 서신서: 언제나 순서는 동일하다. 말씀, 믿음, 구원, 물 침례
 그러므로 8장 같은 데를 가지고 교리를 삼으면 안 된다. 성령 받아야 한다. 성령 세례 받아야 한다
 사도행전 2:38에 근거해서 물 침례를 받아야 성령님의 선물을 받는다는 사람들
 안수해야만 받는다(17): 아니다 2, 10장을 보라.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선물이 주어짐
 행전1-10장은 변천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정에 맞게 행하신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이후 서신서에 순서가 정해진다. 말씀, 믿음, 구원(성령 침례), 물 침례
 시몬은 돈을 주고 그런 능력을 마음대로 주기 원함(18-19)
 여기에서 simony라는 말이 나옴 교회 직무 혹은 특권을 돈으로 사고파는 것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돈과 싸우는 모습이 자주 나온다. 아니냐와 삽비라(5), 빌립보 마귀들린 소녀(행
 16). 에베소 성물함 만드는 자들(행19)
 교회도 여기에 넘어가기 쉽다: 돈 받은 사람들 후원, 교리 버리고 믿음 버리면 안 된다.
 돈 있는 사람 우대하면 안 된다.
 베드로의 말을 보면 그는 회심자가 아니다(20).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않다(21). 그러므로 사역의 일원이 될 수 없다.
 지역 교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 생각이 다르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교체해야지
 자꾸 교회를 어지럽히면 안 된다.

책망하고 회개 촉구(22)

그의 상태(23), 이대로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다.

시몬의 말(24), 전적인 회개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라 심판만 면하려고 함
 다름 사람의 기도는 원하지만 정작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 천국에서 멀다.

이 이야기는 구원에 거의 이르렀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 베드로에게 말씀 들음
 기적들을 봄, 믿음의 고백을 함, 침례를 받음, 그런데 구원을 못 받음, 사탄의 중
 베드로와 요한은 몇 군데서 복음 선포하고 다시 돌아감(25)

에티오피아 내시(26-40)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도 큰 부흥, 그런데 주의 천사가 사막으로 가라고 함(26)
 순종하고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내시, 유대인들 일 년에 세 차례 성전 방문, 내시도 방문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음(28), 대화 시작(30-31)

사53장(32-33), 내시의 질문(34), 빌립의 대답, 그리스도이시다(35)

현 시대 유대인들의 대다수, 사53을 모른다. 심지어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도 모른다.
 유대인들을 가장 많이 변화시키는 말씀: 사53

예수 그리스도 선포의 핵심: 대신 속죄, 하나님의 어린양

결국 말씀을 듣고 믿음(롬10:17)

내시의 말: 침례(36), 어떻게 알았을까? 빌립의 말: 예루살렘에서 보았을 것이다.

빌립의 말(37), 내시의 응답(37), 그리고 물 침례(38)

NIV 등 기존 성경들 37절 없음,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 37절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침례(세례) 불가능, 절 번호는 있으니 누가 뺐 것이다. 누가 뺐을까?

믿음의 고백이 없어도 침례 세례 주는 사람들, 천주교회 혹은 천주교회의 창시자들

마르틴 루터, 틴데일, 제네바, 킹제임스 성경 등,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침례임을 어떻게 아는가? 물속으로 내려가니(38), 물속에서 나와(39), 예수님도 침례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것

내시는 기뻐하며 돌아가고 빌립은 채여 올라가서 아소도로 옮겨짐(39-40)

에티오피아 내시 함의 후손(8장), 사울 썸의 후손(9), 고넬료 야벳의 후손(10)

사도행전 9장부터 28방까지는 사도 바울 맥잡기 25번, 총 34번으로 사도행전 강해를 마친다.